전통·현대·세대 공감 '사직단오축제'

줄타기 장면(왼쪽)과 사직단오제 출정 행렬. 〈사직단오축제위원회 제공〉

24일 사직공원 내 관덕정 일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창포물에 머리 감기·목사출정식
취타대공연 등 전통체험 다채

음력 5월 5일은 단오다. '단'(端)은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午)는 다섯으로 초닷새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단오는 수릿날, 중오절로도 일컬었고,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생각했다.

우리민족의 천년 축제 광주사직단오축제가 열린다. 오는 24일 낮 12시.

'더위야 물럿거라!'를 주제로 광주사직공원 내 관덕정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사직단오축제는 사직단오축제위원회(위원장 김덕진)와 남구청(청장 김병내)이 주최한다.

이번 축제는 식전공연에 이어 개막식과 함께 제4회 광주 남구청장배 궁도대회 시작을 알리는 사사도 함께 개최된다.

단오에 선조들이 청포물에 머리를 감던 의식도 재현된다. 여자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으며, 남자는 액운을 쫓기 위해 창포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전해온다.

오후 2시부터는 광주공원 희경루에서 목사출정식을 갖는다. 이번 목사출정 행렬은 희경루를 출발해 천변좌로를 거쳐 사직단에 이르는 거리를 말 8필에 나눠탄 목사 일행이 취타대와 함께 거리퍼레이드로 진행된다.

이어 3시에는 사직단에서 광주지역 유림들과 각급 기관장이 참여해 땅 신과 곡식의 신께 제사를 올리는 사직대제가 봉행된다.

사직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소출되는 농산물은 흥망을 좌우한다.

그러나 사직단 제사는 지난 1908년 일제에 의해 조선문화를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한 차원에서 폐지됐다. 이후 1960년 말에는 사직동물원 공사와 맞물려 사직단이 헐렸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된 것은 1993년이었다. 이듬해 사직제를 부활하면서 100년만에 폐지됐던 조선의 민복을 기원하던 문화가 재현되기에 이른다.

이번 단오축제에서는 전통문화를 통한 정신계승과 아울러 흥겨운 놀이문화도 펼쳐진다. 취타대 공연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김대균 명인이 펼치는 줄타기 공연이 열리고 인기가수들의 무대공연을 통해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단오선 애호 장명루 등 전통체험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한편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라는 주제로 윤두현(경산), 권성동(강릉), 이개호(영광), 이병훈(광주) 국회의원과 전국 단오제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열렸다. 단오제의 가치를 되새기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편 김덕진 위원장은 "단오는 예로부터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라 하여 명절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사직단단오축제는 우리 전통문화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문화예술 분야 직업의 세계로

ACC, 7월6일~8월31일 전공 대학생 직군탐색 심화과정 개설

융·복합문화기획자, 사운드엔지니어, 전시테크니션, 디지털아키비스트.

문화예술 분야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돼 관심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여름방학 ACC 직군탐색' 심화과정을 연다. 오는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번 과정은 융·복합문화기획자를 비롯해 사운드엔지니어(음향기술자), 전시테크니션(전시기술자), 디지털아키비스트(디지털 자료 보존 관리 전문가)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됐으며 ACC 극장3과 문화창조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한다.

융·복합문화기획자 강좌는 '기후위기 시대 융·복합문화기획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며 조주현 전시기획자 등 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사운드엔지니어 강좌는 권지휘 미스터어쿠스틱스 대표 등 3명의 강사가 극공연, 녹음실 분야 강의와 함께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전시테크니션은 전시기술 기초 이론과 조명, 영상 등으로 꾸며지며 김형욱 감독과 허동혁 음악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아키비스트 강좌는 김선혁 레벨나인 대표, 주은정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등의 이론 및 사례 강의로 진행된다.

강좌별 20명 선발하며 무료. ACC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직군탐색 심화과정은 현장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억척 해녀와 억센 여자의 만남

영화 '밀수' 김혜수·염정아 투톱

"제가 (영화를) 오래 했잖아요, 많이 하기도 했고. 인상적인 배역도 했는데, 이건 제가 했던 배역 중 가장 상스러운 배역이에요."

배우 김혜수는 2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밀수' 제작보고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여름 성수기 시장을 겨냥해 다음 달 26일 개봉하는 '밀수'(류승완 감독)는 1970년대 바닷가 마을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억척스러운 해녀 '춘자'(김혜수 분)와 '진숙'(염정아)이 밀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영화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 춘자는 바다에 던져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밀수에 빠져들어 진숙을 끌어들인다.

이들이 전문 밀수꾼 '권 상사'(조인성)를 만나면서 판이 커지고, 일확천금을 손에 넣을 기회를 맞으면서 예측 불가의 사건에 휘말린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만큼 배우들은 수중 촬영도 많이 했다. 과거 물속에서 공황 장애를 겪은 적이 했다는 김혜수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극복했다고 한다.

"수중 센터에서 깊이 6m의 물을 내려다보는데 공황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여기서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명씩 들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며 흥분하고 환호하다가 공황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났죠."

이 영화에선 염정아도 춘자 못지않게 억센 해녀를 연기하며 김혜수와 호흡을 맞췄다.

염정아는 "(촬영 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좋았던 현장이었다"며 "그 중심에 혜수 언니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혜수(왼쪽), 염정아

그는 수중 촬영에 대해선 "물도 싫어하고, 수영도 해본 적 없고, 그런데 너무 하고 싶고…. '닥치면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은 해냈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기안84 '태계일주2' 여행예능 속 '선전'

편견없는 모습 호평…20·40대 시청률 1위

웹툰 작가 기안84(39·본명 김희민)의 가식 없고 편견 없는 솔직함을 전면에 내세운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이하 '태계일주') 시즌2가 비슷한 형식의 여러 여행 예능 중에서도 유독 선전하고 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송된 MBC '태계일주' 시즌2 2회는 시청률 5.8%를 기록했다. 1회 방송분의 시청률 4.7%보다 1%포인트가량 높고 이전 시즌의 최고 시청률인 5.2%보다 높다.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인 '2049'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3%로 동시간대 가장 높았다.

'태계일주' 시즌2에 대한 관심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비슷한 종류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들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간대에 방영 중인 KBS 2TV '걸어서 환장 속으로'는 올해 1월에는 시청률이 최고 6.0%까지 올랐으나 2분기 들어서는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KBS 2TV '배틀 트립', tvN '부산 촌놈 in 시드니', JTBC '뭉뜬리턴즈' 역시 최근 시청률이 1~2%대에 머물고 있다.

'태계일주' 시리즈는 기안84의 여행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즌1은 중남미로, 시즌2는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이 프로그램의 원동력은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기안84에게서 나온다. 기획 단계부터 기안84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기안84는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로 본격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가식 없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지만, 그 전부터도 웹툰 팬들 사이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날것 그대로의 솔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안84는 '태계일주'에서 장거리 여행임에도 조그만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을 챙기고, 인도 길거리 음식도 길바닥에 앉아서 먹어 치운다. 기안84를 비롯해 인도를 여행하는 출연자들이 모두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는 점도 프로그램에 신선함을 더했다.

/연합뉴스